

2020학년도 모의논술

논술시험 (인문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30점)

<보기>

친애하는 ○○○ 씨께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입학이 거절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보다 귀하의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난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귀하 대신 입학이 허가된 사람들도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학으로 이어진 자질을 청송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보다 큰 사회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귀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해서 귀하의 타고난 도덕적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귀하가 요즘의 사회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자들을 우대해온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대학교 입학처

<제시문 1>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훌륭한 ‘롤 모델’ (role model)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롤 모델을 통해 배우며, 탁월한 사람이 되려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빼어난 롤 모델들을 ‘영웅’ 이라 부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하는 나는 특히 소수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자극을 받는다. 나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은 나와 같은 소수 인종에 속하는 초등학교 교사 드브와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영웅시 하는 나의 태도가 비정상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드브와 선생님은 남다른 노력과 인내를 통해 빈곤과 차별의 벽을 뚫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물론 같은 인종이나 성에 속하는 롤 모델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모방하고 싶은 훌륭한 롤 모델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인간성은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성공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소수자 집단에 속할수록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롤 모델에게서 더욱 강렬한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제시문 2>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경쟁하고 있는 개인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인종통합의 가장 성공적인 행위로 거론되곤 하는 예로서, 1940년대 말 브루클린 다저스 팀이 재키 로빈슨 선수를 영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사례가 바로 탁월한 기량에 따라 선수를 영입한 경우다. 만일 로빈슨이 평범한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거나 2할 타율에 그쳤다면 경멸을 당했을 것이며, 원래 속했던 마이너리그로 되돌려 보내졌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 능력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정해야 할 꽤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 현재 사회의 관행을 두고 볼 때, 능력은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최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직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과학자가 가장 어려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되어야 하며 가장 뛰어난 군인이 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목해보라! 아무도 흑인 선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야구 연맹에서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백인 선수들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이유로 쿼터를 할당하거나 백인 인구에 비례하여 선수를 기용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논술시험 (인문계)

<제시문 3>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한 대우는 지원자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지위가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차이'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에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이 지원했을 때 여성 지원자의 우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플로레스에 따르면, 성(性)은 그 직업의 속성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뽑을 것인지 결정할 때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직업에 필요한 기준과 후보 선발에 필요한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한다. 기업은 상업만이 전부인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 체계의 일부로서 사회 전체의 복지와 통합에 대한 의무도 진다. 따라서 플로레스는 기업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한 가지 선택 기준으로서 사회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사회정의는 집단들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입장은 일차적으로 보상적 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본질에 관한 주의 깊은 검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시문 4>

배상은 해를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A가 x와 관련하여 B에게 해를 가하면, B는 x와 관련하여 A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A가 B의 차를 훔쳐서 파손하게 되면, A는 그 훔친 차에 대해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의 아들은 B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A가 죽거나 실종되면, B는 자신의 잃어버린 차에 대해 사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 과거에 저질러진 어떤 잘못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그런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자라면서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나의 부모가 나에게 비싼 성장 호르몬을 구입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불행히도 이웃 사람이 그것을 훔쳐 키가 작은 마이클에게 주어 복용하게 함으로써 마이클이 40센티미터나 더 자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1미터 97센티미터의 키를 갖게 되었다. 마이클 조던은 이와 같은 행운이 없었더라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이클은 누군가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농구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이런 과거를 근거로 조던이 프로 농구선수로서 번 수백만 달러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내가 복용했어야 할 성장 호르몬을 훔친 이웃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조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만일 조던이 친절하게도 시카고 볼스 팀 경기의 무료관람 표를 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나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빛도 지지 않았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2] 아래 <자료 1>과 <자료 2>는 ‘여성고용할당제’ 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여성고용할당제 외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 하시오.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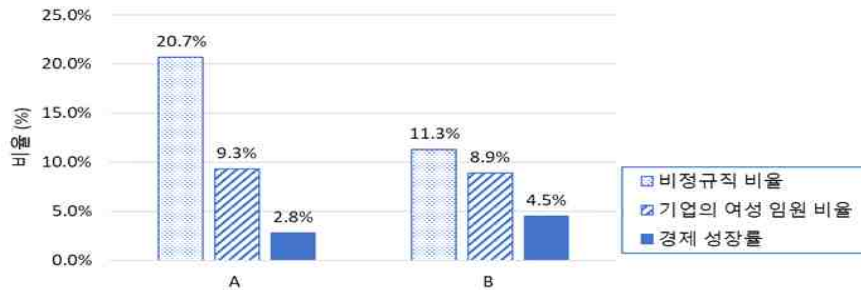
<자료 1>

<표 1>

성별 간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질문: 우리 사회에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가?)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A	13.3%	22.9%	27.5%	25.4%	10.9%
B	6.2%	15.3%	23.7%	36.5%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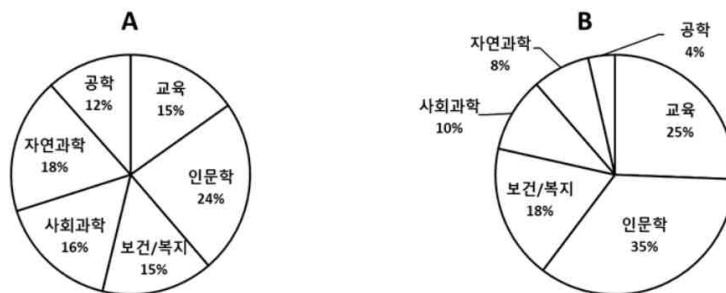
<표 2>



<자료 2>

<표 1>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



<표 2>

	A		B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경제활동 참가율 (%)	75.5	67.0	76.6	55.6
무급 근로시간 (분/1일)	141.0	227.0	145.0	275.0
평균임금수준 (미 달러/시간)	23.7	16.9	24.1	12.8

* 무급 근로는 가족, 친지 등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종사하는 근로, 노동을 의미함.

**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체 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 3] 국가 C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해당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인 자) 채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각각 논술하시오.(30점)